



## “늘푸른 마음, 늘푸른 환경인”

- 한솔제지 대전공장 보전환경팀 김금중 과장

지난 1995년 준공된 한솔제지 대전 공장은 7만평 규모의 대지에 최첨단 설비를 갖춘 산업용지 전용 생산공장으로, 특히 백판지 생산공장으로는 세계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백판지, 컵원지, 아트보드지 등 월 4만5천톤의 종이를 생산하는 한솔제지 대전공장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한솔제지 보전환경팀 김금중 과장을 이달에 만난 환경인에서 만나 보았다.

김금중 한솔제지 보전환경팀 환경파트리더(48·대전충남 환경관리인협회 수석부회장).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만난 그는 작업복 차림에 조금은 피곤한 표정이었다. 소각로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측정결과 분석 때문에 포항공대에서 밤을 새우고 바로 대전으로 올라온 간밤의 업무 때문이었다. 다행히 다이옥신 배출농도는 권고치 보다 훨씬 아래였다고 만면에 미소를 짓는다.

한솔제지 대전공장의 환경배출 및 처리시설 규모는 대전충남지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큰 규모이다. 제지공정의 특성상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23,000㎥/일 규모의 폐수처리장, 3,900㎥/min 용량의 전기집진기, 672톤/일 규모의 소각로 1기 그리고 고·저압 보일러 등이 주요 환경시설이다.

환경시설의 유지·관리시 김 과장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다름 아닌 '에너지 절약과 재활용'이다.

“이곳은 공단지역이라 종말처리장으로 폐수가 나갑니다. 물론 처리비

“우리 환경관리인의 위상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품가치, 존재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용도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장에서 폐수를 1, 2차 처리하는 이유는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공장에서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이 2만2천톤인데, 이 중 폐수를 정화시킨 재이용수 사용률이 65%를 차지합니다. 또 소각로의 연소효율 향상을 통해 일일 42,000l 이상의 석유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의 노력은 지난 '99년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해 밖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 못지 않게 철저한 환경관리가 기본임은 물론이다.

“폐수처리 공정에 순산소 밀폐 타입의 폭기조를 도입, 악취 제거 및 폐수처리효율 향상에 만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로 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최소화하고 사내 매립장을 이용, 비상시 소각잔재물 처리에도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제지에 지난 '76년에 입사해 열병합 및 터빈 발전 분야의 업무를 담당했던 김 과장이 이곳 대전공장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때는 '95년. 대전공장의 준공과 함께 창립멤버로서, 소각로 폐수처리장, 보일러시설의 총 운영·관리책임자로 본격적인 환경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 대전에서 처음에는 힘든 점도 많았지만 지역 환경관리인 협의회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김 과장은 말한다.

“인·허가 업무부터 대관·대민 업무까지 이곳에 와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모든 환경문제를 시작하다 보니 처음에는 정말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선후배는 커녕 친척도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역 환경관리인협의회 존재가 저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대전에서의 생활이 6년째로 접어든 김 과장은 이제는 대전충남 환경관리인협의회 및 충청지방 환경친화기업협의회 부회장을 맡아 지역 환경관리인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입장으로 변모했다.

“우리 환경관리인의 위상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품가치, 존재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 협의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과 일본어회화에 능통한 김 과장이 요즘 새롭게 시작한 공부는

중국어회화. 김 과장은 환경관리인 스스로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끝으로 자신이 몸 담고 있는 한솔제지 자랑을 잊지 않았다.

“우리 대전공장만 해도, 폐지재활용이 대단한 분량입니다. 나무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늘푸른 한솔’이라는 회사 슬로건처럼 국내외 조림사업을 통해 녹지보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과 자연을 제일의 가치로 하는 기업이 우리 한솔입니다.”

